

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2016. 11. 11.

금 용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 인사말씀

- 살얼음 판 같은 **경제상황에 불확실성**이 심화되고 있음
 - 브렉시트와 유럽은행들의 건전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새로운 **불확실성**이 나타나고 있음
- 최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**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**을 위해서는 현 경제여건과 시장의 움직임에 **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**하는 것이 중요함
 - ①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**금융시장과 금융권의 안정**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함
 - ②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를 우리경제의 회복력(resilience)을 높이는 **전화위복의 계기**로 삼아 **4대부문 구조개혁**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함
 - ③ 미국 신정부의 출범은 우리 경제에 **기회 요인**이 될 수 있는바 대규모 **인프라 투자, 제조업 부흥** 등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**교역·투자 확대방안**을 모색하는 노력도 중요
-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진이 확산되는 **가장 취약한 단층면(fault line)**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
 - 금융당국도 **조금의 빈틈도 용인하지 않는다**는 자세로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위기 대응하겠음
- ➡ **오늘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에 대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**

2 제2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및 정책방향

가 가계대출 동향

- 금년들어 제2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음
 - '13~'15년간 연 평균 8.2% 수준의 증가속도를 유지하였으나 금년에는 13%대의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음
 - * 비은행 가계신용(% 전년동기 대비) : (13)7.3 (14)8.0 (15)9.2 **(16.2/4)13.1**
 - 특히,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이 증가속도를 견인하고 있음
 - * 상호금융권 가계신용(% 전년동기 대비) : (13)7.3 (14)9.8 (15)8.9 **(16.2/4)13.6**
-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아직 안정적인 수준*이나, 빠른 대출 증가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
 - * 상호금융 가계대출 연체율 : ('14말)2.59% → ('16.6말)**1.66%**
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: ('14말)9.13% → ('16.6말)**6.77%**
 -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, 미 금리 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과 맞물려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시점임
 - 특히, 제2금융권은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, 대내외 불안상황에 대비하여 발빠르게,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

나 정부의 대응방향

- ① 우선, 지난 8.25 「가계부채 관리방안」을 조속 이행하겠음
 - ①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(LTV)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지난 10.31일부터 시행중임
 - * 비주택담대 LTV 총 한도 80% → 70%,
기본비율 최저한도 50% → 40%, 가산비율 한도 10% → 5% 등
 - ⇒ 이를 통해 연간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액(전년 9조원)의 22%(2조원) 수준 감축을 기대하고 있음
- ② 상호금융권 실정에 맞는 “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”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음
 -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확인을 면밀히 하는 한편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분할상환 정착이 핵심임
 - (소득확인) 농·어민 등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에 맞도록 소득확인방식 등을 보다 정교화하고,
 - (분할상환) 통상적으로 만기가 짧은 상호금융 대출의 특성에 맞게 부분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임- ⇒ 이번달 중 방안을 확정하고,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임
- ③ 또한, 총체적 상환능력심사(DSR)도 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갈 것임

② 이와 함께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호금융 조합,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음

○ 연말까지 금년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,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겠음

- 비주택담보대출,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심사 등이 적정하였는지 현장 점검하고,

-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, 리스크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임

③ 아울러, 대내외 변수와 가계부채 확대가 우리 경제·금융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비해 나가겠음

○ 미 금리인상, 주택시장 구조변화 등 대내외 변수가 가계부채 확대와 맞물려 우리 경제·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,

○ 다양한 변수를 감안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우리 경제·금융의 위험성을 측정해 가면서

○ 위기상황에 대한 비상대응계획(contingency plan) 재정비 등을 통해 대내외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음

④ 마지막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, 업권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

○ 많은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모두를 감독당국에서 검사·조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,

○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업권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

3 마무리 말씀

□ “멀리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, 가까운 시일내 어려운 일이 닥친다”는 말이 있음

* “인무원려 필유근우(人無遠慮 必有近憂, 논어 위령공편)”

□ 가계부채 문제도 적정수준으로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

① 가계부채 관리는

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끈질기게 대응해 나가겠음

② 또한,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히 부채관리 뿐 아니라

주택, 건설 등 부동산 시장, 서민경제 등에 직결되는 만큼 비숫물이 묻어 있는 접시를 닦듯이 섬세하면서도 세심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

□ 제2금융권 모두가 한마음을 갖고

가계부채 문제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았으면 함. 감사합니다.